

생각하는 손, 생각하는 몸

Thinking Hands, Thinking Body

유화정(Yoo, Hwa Jung)*

Sennett, R.(2010). 장인 (김홍식 역). (주)북이십일 아르테. (원저출판 2008).

장인이라면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고품질의 가죽가방을 꿰매는 사람이나, 종로 골목 어딘가의 작은 가게에 앉아 나무를 깎는 사람, 미세한 손놀림으로 원두를 볶아 커피를 내리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은 특정한 직업 환경에서 단순하지만 생산적인 손의 움직임을 반복함에 따라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당장의 물질적 이익보다는 생산 과정 자체에 존재적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잉여 노동, 잉여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는데 집중하는 현대 사회지만, 우직하고도 섬세한 장인의 움직임과 태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에서도 누군가의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수작업 영상이 지속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얻는 것을 보면, 장인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듯 하다.

장인에게 '기술(technique)'은 화폐와 보람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육체적으로 숙련된 활동을 뜻하지만, 인간의 의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삶과 직업에 대한 장인의 태도, 그를 받아들이는 한 사회의 문화가 장인의 기술을 더없이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장인의 관습적인 의식(ritual)이자 기술적인 행위는 그의 구체적인 작업과 생각 사이를 오가는 대화가 긴 세월동안 이어졌을 때, 비로소 영험한 기술로서 진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구문명은 장인의 기술로부터 육체와 정신의 연결성을 찾아 내는데 오랜 시간 장애를 겪어왔다. 즉 육체 노동을 하는 동안 생각과 의식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으며 일이 모두 끝난 뒤에야 제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었다. 저자인 리처드 세넷은 이러한 구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며, 실질적으로 일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내부에서 보다 집중된 생각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건을 만드는 일은 곧 자기 창조 활동의 근본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리처드 세넷은 본래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에 관해 분석하는 사회학자로서 『장인, The Craftsman』

* 중앙대학교 무용과 강사, hjyoo27@gmail.com

(2008) 외에도 『투게더, Together』(201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The Corrosion of Character』(1998), 『뉴캐피털리즘, The Culture of the New Capitalism』(2006) 등을 연속적으로 집필한 바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장인』은 장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인간의 노동과 직업, 이데올로기까지 관점을 넓혀 나간다. 특히 큰 보상 없이도 자신만이 가진 세심하고 까다로운 손의 기술로부터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장인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의미임을 되새긴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부 ‘장인’은 점차 사라져 가는 장인의 현실과 이유를 서술한다. 정신적인 탐구가 구체적인 경험보다 귀한 것임을 강조하는 사회 제도 속에서 장인들의 사기는 늘 꺾이고 무시당해 왔으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기술을 품질 표준이라는 잣대를 들어 망가뜨리는 현실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아 왔음을 강조한다. 특히 르네상스기에 들어 예술과 장인, 표현과 기술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장인의 작업장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그들의 권위 또한 사라졌음을 말한다.

2부 ‘실기(craft)’는 보다 구체적으로 장인의 물리적 기능이 어떻게 획득되고 발전되는지 살핀다. 즉 장인의 행위는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고, 상상력이나 고도의 의식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영역이며, 개인의 꾸준한 인내가 작동하는 과정임을 서술한다. 또 장인의 손이 특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피부를 통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 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힘과 보조적인 힘의 조절이 필요하며, 모든 단계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만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훈련을 통해 숙달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을 통한 은유적 표현과 설명, 그리고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3부 ‘장인의식(craftsmanship)’은 장인의 욕망과 역량을 구체적을 다룬다. 어떤 일을 훌륭히, 그리고 완벽히 해냄으로써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인의 욕망은 때때로 강박적인 집착의 색깔을 띠게 된다. 고도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완성하여 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강박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인의 이러한 성향은 넓은 사회 속으로 자신을 던져 모험할 수 있도록 이끌기 보다는 일반 사회와 분리된 이방인으로서의 특징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물론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만나며 자신만의 전문지식과 기술로 그들을 초청하는 데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장인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고립과 집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는다.

장인은 저자 리처드 세넷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그에 눌린 집단에 대해 논의를 펼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저자는 과거와 현대 사회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회의 내재적인 구조에 갇혀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 바깥으로 나와 인간 자체에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책의 말미에는 실용주의와 물질주의, 일과 놀이, 국가와 사회, 계몽주의에 관한 이론까지 논의가 확장되며 근대 자본주의의 실체, 도시와 문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해석하기에 이른다.

무용학자인 필자는 사실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우연히 접하여 읽었는데, 생각하는 손이 곧 생각하는 몸으로 확장되어 논의될 수 있다면 무용의 지평은 끝없이 넓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난다. 서평을 작성하기 위해 재차 읽어 본 지금은, 저자가 책에서 제시한 장인의 개념과 사회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무용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몸의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 지식을 체화하는 영역으로의 연결성을 곱씹을 수 있었다.

I. 예술가의 정신과 장인의 육체

저자는 예술가와 장인이 본래 구별되지 않는 분야의 직종이었으나, 서구 르네상스 시대의 특정 집단이 실기(실체적, 물질적)분야로부터 독립해 활동하게 되면서 예술가의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인간의 이성과 정신적 작용을 중시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장인에 대해 자신의 앞에 주어진 물질, 즉 만질 수 있고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기능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반면 예술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감각하여 특별한 물질의 역할을 찾아내거나 결정하고, 거기에 상상력과 개성을 더하여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집단이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예술가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물질은 곧 예술가의 생각이자 표현 방식, 즉 정신적인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 장인의 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요, 예술가의 행위는 정신적인 행위라 분리한 이분법적 태도는 장인보다 예술가의 행위를 훨씬 훌륭한 가치로 판단하는 데 이르렀다. 이러한 전개는 몸에 대한 경시와 무관심으로 이어져, 신체 표현을 중심 도구로 삼는 무용이 여타의 예술 장르에 비해 느린 속도로 예술로서 인정받게 된 데 영향을 미쳤다.

II. 전통과 클래식의 기술, 그리고 창작

그렇다면, 예술로서 인정받은 이후의 무용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국내의 무용예술 분야를 예시로 살펴봤을 때, 안무가가 추구하는 정신적 활동으로서의 창작과 표현 행위가 동시대 무용예술의 최전선에서 고투하는 경향이다. 동시에 과거로부터 전승된 무용의 기술과 정서를 몸으로 익힌 뒤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에 전달하는 역할이 전통춤과 클래식 발레의 영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전통춤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각인되어 온 또 다른 예술의 개념을 체현하고 있으므로 저자가 언급한 장인과 예술가 집단의 구조를 전복시키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특히 유교문화의 확장과 함께 독자적인 예술의 개념을 취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예(藝)’는 기능과 기술을 의미하고, ‘술(術)’은 실행 방법을 의미한다.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과 지혜, 학술이 융합되어 예술을 완성한다고 믿었으며 기초 교양의 씨를 뿌리고 인격의 꽃을 피우는 수단이 곧 예술이라 일컬었다. 즉 기술이 강조된 실력만으로 예술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인성과 삶의 태도가 훌륭한 예술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곧 숙련된 기술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는 장인의 태도와 맞닿는 부분이며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예술가는 서구에서 말하는 장인과 예술가의 중첩된 지점에 속하게 된다. 개인의 창조적인 본능을 자제하고, 스승과 제자의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통춤꾼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새로움을 탐색하는 정신적 영역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예술가라 말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예술가와 장인에 대한 관점은 입체적이며 유동적이다.

리처드 세넷의 『장인』은 장인의 역할과 특성을 도구 삼아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현 시대 무용가의 입장에서 이 책은 장인이자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의 부제인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함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생각하는 몸’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무용이 보다 깊이 있게 스스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